

한국과 일본에서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영
와세다대학교

이누미야 요시유키
서정대학

김재신
University of Massachusetts

최일호
명지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한국대학생 164명과 일본대학생 152 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문화적 자기관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자아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을 통해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모형을 제안하고, 이러한 모형이 한국과 일본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제안된 모형의 부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모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대인불안에 부정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공격자기의식을 통해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한국에서 자아존중감이 공격자기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했으나 일본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이 공격자기의식과 대인불안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요어: 한국, 일본,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자아존중감, 공격자기의식, 대인불안

대인불안(social anxiety)은 현실이나 상상의 대인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평가에 직면하거나 혹은 그것을 예측할 때 나타나는 불안 상태를 의미한다(Schlenker & Leary, 1982). 이러한 심리상태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이 경험하는 현상이며, 주로 타인의 주시로 인한 자기의식에서 비롯된다.

대인불안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현상이지만,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인불안과 유사한 개념으로 분류되는 사회공포증

(social phobia; social anxiety disorder)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자신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가해 염려의 특징이 있으며, 서구문화권에서는 남들이 내게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는 피해염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권정혜, 이정윤, 조선미, 1998; 向井, 2001).

자신과 타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동양문화권에서 대인불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한국과 일본은 대인불안 수준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인의 타인을 의식하는 정

조선영은 와세다대학교, 김재신은 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 재학, 이누미야 요시유키는 서정대학, 최일호는 명지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음.

교신저자 : 조선영, Waseda University, 1-24-1 Toyama, Shinjuku-ku, Tokyo, Japan 162-8644, Tel: 81-3-5286-3547, E-mail : sycho03@empal.com

도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대인공포증 환자에게 보이는 증상과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오가와(小川, 1974)는 일본인의 심성을 대인공포적 심성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는 대인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수는 1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齋藤, 1998). 실제로 대인불안에 관한 한일비교연구에서도 일본인은 한국인보다 대인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영, 이누미야, 한성열, 木村, 2005).

최근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문화적 자기관이라는 개념에 착목하여 검토하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화적 자기관이란 어떤 문화 안에 역사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자기에 대한 전제이며, 문화가 갖는 심리적 과정의 구성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상호독립적 자기관(independent view of self)과 상호협조적 자기관(interdependent view of self)이라는 자기에 대한 분석적 모델을 구별하고 있다. 서양문화권에서 우세한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자기는 타인과 분리된 독자적인 실체이고 자기만이 갖는 여러 가지 속성을 발견하여 표출함으로써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동양문화권에서 우세한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자기는 타인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에 소속하여 그 안에 상응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타인과 상호의존적,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Markus & Kitayama, 1991).

한편, Markus & Kitayama(1991)는 동서양 각각의 문화내에서도 비전형적인 자기관이 우세한 하위문화와 개인이 존재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개성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는 인간존재의 양면성을 반영한 것이며, 어떠한 개인도 두 개의 자기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자기관 중 어느 것이 우세하냐에 따라 심리적 과정에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문화적 자기관과 비현실적 낙관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일비교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비현실적 낙관성 경향을 보인 반면, 일본 대학생들은 강한 비현실적 비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한국 대학생이 일본대학생에 비해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이누미야,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이러한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관이라는 구성개념은 비교문화 연구뿐만 아니라 문화내 변산 연구에서도 유효한 분석틀이며, 특히 비교적 독립적인 두 개의 개념이라고 이해했을 때 개인의 심리현상을 더욱 잘 해석할 수 있음을 여러 연구자가 밝히고 있다(高田, 大本, 清家, 1996).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양쪽 다 높은 사람이나 양쪽 다 낮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나(高田, 1992), 어떤 심리적 과정이 상호독립적 자기관과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호협조적 자기관과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상호협조적 자기관과는 상관관계가 있는데 상호독립적 자기관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경험적 자료(高田, 1992; 黒川, 1994)는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직교성을 지지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문화적 자기관과 대인불안의 관계에 관한 모형을 제시하고 검증하고자 한다.

문화적 자기관과 대인불안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기본적 차이는 자신과 타인, 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라는 자기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조, 사회 안에서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제, 자기인식과 관련된 다른 사람의 역할, 자존심의 기반 등의 넓은 범위에 미친다(高田 등, 1996).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한 집단에서의 개인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서 표현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데에 반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집단에서의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서로의 기분을 살피며 공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Matsumoto, 2000). 또한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자기고양적 경향이 강하나(北山, 1995),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한 사람들은 겸양편향이나(김혜숙, 1995), 자기를 타인보다 낮게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기비판, 비하적 경향이 높았다(北山, 1995; 北山, 唐澤, 1995; Heine & Lehman, 1997).

자기비판적 경향을 보이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하는 경향이나 사회적 회피경향을 야기함으로써(Okazaki, 1997), 대인불안과 밀접한 관계를 보일 것이라 예상된다. 문화적 자기관과 대인불안간의 관계를 본 연구들에서는 상호독립적 자기관

과 대인불안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호협조적 자기관과는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거나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등 일관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高田 등 1996; Kleinknecht, Dinnel & Kleinknecht, 1997; 서동효, 2001). 또한 문화적 자기관과 대인불안간의 관계를 매개모형을 통해 살펴본 김보경(2003)의 연구에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대인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공적자기의식을 매개로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대인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러한 영향력이 직접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한 집단에서는 자신 안에 있는 다양한 속성이 자기를 규정하는 가장 중심적 특성이다. 따라서 자기 안에 있는 자랑할 만한 속성을 발견하고 표출하는 자기고양은 자기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北山, 1995). 이러한 자기고양 경향은 특히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동기가 높을 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보다 높은 자기고양 귀인성향을 보이고 있다(Schlenker, Weigold, & Hallam, 1990).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高田 등, 1996; Kwan, Bond, & Singelis, 1997; 서동효, 2001),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이며, 자기 자신의 능력과 가치에 관한 평가적 감정이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 즉 대인적 상황에서 자기평가가 낮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대인불안이 높으며,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자아존중감과 대인불안 간의 관계는 지금까지 검토되어온 다른 구성개념보다도 일관되게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Cheek & Buss, 1981; 堀井, 小川, 1996).

이와 같은 기존 연구결과를 근거로 볼 때,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특성인 독단성과 자기주장성이 자아존중감의 자기평가적 속성을 통해 대인불안으로 연결될 것

으로 가정할 수 있다.

공적자기의식의 매개효과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어떻게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집단에서는 인간관계 안에 있는 자신의 속성이 자신의 중심적 정의가 된다. 따라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자기를 소속시키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암묵적 기대, 규범, 가치관 등을 판단하고 비교해서 자신에게 결여되어 있는 점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생각되고 평가받는지 민감하게 반응한다(北山, 1995).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사람은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 받는지를 염려하는, 즉 공적자기의식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과도 유사한 점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다룬 여러 경험적 연구들에서도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공적자기의식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高田 등, 1996).

공적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란 타인에게도 관찰 가능한 자기의 모습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며(Fenigstein, Scheier, & Buss, 1975),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며(Fenigstein, 1979),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표출의 방식을 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Scheier, 1980). 공적자기의식은 대인적 상황에서의 자기의식이라 할 수 있으며, 대인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인불안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지적되어 왔다(Buss, 1980; Leary & Schlenker, 1981).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속성인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공적자기의식을 매개로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김보경(2003)의 연구에서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대인불안간에 공적자기의식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공적자기의식의 질적 차이

조선영 등(2005)의 연구에서는 한국 대학생의 경우 공

적자기의식과 대인불안 간에 상관이 없었으나, 일본 대학생은 공적자기의식과 대인불안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한일양국에서 공적자기의식이 의미하는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한국인은 공적자기의식이 긍정적인 의미의 내용으로 작용하여 대인불안과 상관이 없었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일본인은 공적자기의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대인불안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자기의식은 대상 집단이나 그 수준에 따라 역할이 다를 가능성이 시사되어 왔다(최정아, 1996; 조아라, 1996 참조). 또한 공적자기의식은 대인불안뿐만 아니라 자기현시성에도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菅原, 1984). 즉, 타인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강하게 의식하는 사람은 방어, 도피적 행동을 하거나, 반대로 자기현시적 행동을 하기 쉬운 정반대의 반응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자기의식의 상반된 반응 경향은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나 타인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인불안이 강한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나 타인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자기현시성이 강한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나 타인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타인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면하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모니터링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한편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현시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모니터링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아존중감 수준의 집단을 동시에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과 공적자기의식의 관계는 단순한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V자형의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는(조선영 등, 2005) 반면, 일본인은 자기비하적 평가를 한다(北山, 1995; 北山, 唐澤, 1995).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자

아존중감의 수준의 차이는 공적자기의식에 차별적 영향을 주어 각각 자기현시 경향과 자기방어 경향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한국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공적자기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일본에서는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자기방어 경향이 강한 일본은 자기현시 경향이 강한 한국보다 공적자기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강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와 가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문화적 자기관과 대인불안간의 관계에 관한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형으로 한일간의 대인불안 양상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들은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라는 구성개념이 비교적 독립적이며, 이러한 문화적 자기관을 통해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모형이 한국과 일본 간에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가정 하에, 우선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자아존중감과 공적자기의식을 통해 대인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대인불안 모형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대인불안 모형이 한일간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각각의 세부경로에서 한일간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의 자기는 타인이나 주위의 상황과는 독립된 실체이며, 자신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자기관은 대인불안을 억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비해,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자기는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관계지향적 실체이며, 타인의 평가나 주위의 상황에 민감한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자기관은 대인불안을 쉽게 유발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한일양국의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는 공적자기의식의 상반된 반응경향, 즉 자기현시 경향과 자기방어 경향을 초래할 것이며, 자기방어 경향이 강한 일본인의 경우는 자기현시 경향이 강한 한국인의 경우보다 공적자기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강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며, 그림 1은 기존연구를 토대로 문화적 자기관과 대인불안간의 관계에 관한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연구문제 1 : 문화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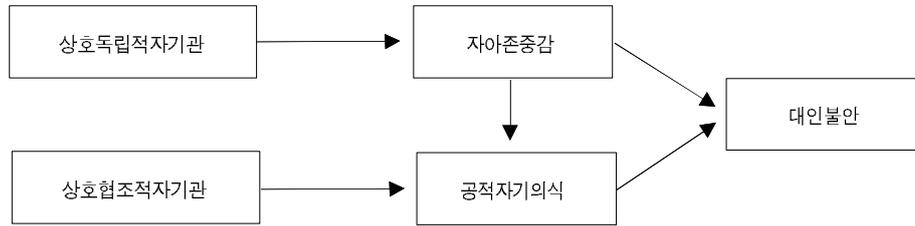


그림 1. 대인불안의 연구모형

- 가설 1-1 :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대인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공적자기의식을 매개로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 대인불안모형의 세부경로에서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방 법

조사대상자

한국에서는 K대에 재학하고 있는 171 명이 조사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한 164명(남자 : 82명, 여자 : 8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균연령은 20.8세(남자 : 21.8세, 여자 : 19.7세)였다. 일본에서는 W대에 재학하는 163명이 조사에 참가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52명(남자 : 92명, 여자 : 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0.7세(남자 : 20.7세, 여자 : 20.7세)였다.

측정도구

대인불안 : 호리이와 오가와(堀井, 小川, 1996; 1997)가 개발한 20문항척도를 사용하였으며 7 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한국에서 사용한 대인불안척도는 일본의 대인불안척도를 연구자 2명을 포함한 5명(한국어와 일본어 2개 언어가 가능한 한국인 4명, 일본인 1명)이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걸쳐 번역하였다. 일본에서 개발된 대인불안척도의 요인구조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일양국의 각각의 요인구조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4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고, 모든 문항이 해당요인에 .40 이상

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일양국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이었으며, 한국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93, 일본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92이었다.

대인불안척도는 본래 30문항 6하위척도(1 : 자신이나 타인에게 마음이 쓰인다[5항목], 2 : 집단에 융화되지 못한다[5항목], 3 : 사람들 앞에서 당혹스러워 한다[5항목], 4 : 시선에 신경이 쓰인다[5항목] 5 :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5항목], 6 : 사는 것에 피곤해 있다[5항목])로 구성되어 있으나, 하위척도 5, 6은 대인불안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기에 제거하였다. 하위척도 5는 자기통제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신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척도 6은 과도한 대인관심으로 인해 이차적으로 유발되기 쉬운 심신부조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 Markus와 Kitayama (1991)의 문화적 자기관 개념에 근거하여 타카타, 오모토, 세이케(高田, 大本, 清家, 1996)가 제작한 2(문항의 상호독립적-상호협조적 자기관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독단성'과 '개인 인식' 주장,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평가염려', '친화, 순응'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한일양국의 각각의 요인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일양국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각각 .81과 .69이었으며 한국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각각 .79와 .70, 일본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81과 .69이었다.

공적자기의식 : 스가하라(菅原, 1984)가 개발한 자기 의식척도 중 공적자기의식 11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자기의식척도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는가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자신의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적 자기의식과 외부로부터 보이는 자신의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공적자기의식의 두 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일양국의 각각의 요인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1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고, 모든 문항이 .50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보였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일양국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한국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90, 일본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88이었다.

자아존중감 : 한일 각국에서 변안된 Rosenberg(1965)의 10문항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자아존중감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일양국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 한국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90, 일본의 자료만을 분석한 내적 일치도는 .82이었다.

결 과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한국과 일본에서 응답자들의 문화적 자기관, 자아존중감, 공적자기의식, 대인불안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한일간의 비교분석결과,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한국($M=4.72$)이 일본($M=4.28$)보다 높았으며, $t(314)=5.03, p<.001$, 상호협조적 자기관도 한국($M=4.86$)이 일본($M=4.70$)보다 높았다, $t(314)=2.30, p<.05$. 또한 자아존중감도 한국($M=5.27$)이 일본($M=4.29$)보다 높았고, $t(314)=8.91, p<.001$, 공적자기의식도 한국($M=5.35$)이 일본($M=4.93$)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t(314)=4.27, p<.001$, 대인불안은 일본($M=3.47$)이 한국($M=3.0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14)=-3.43, p<.01$.

표 1. 상호독립적 상호협조적 자기관 자아존중감 공적자기의식, 대인불안의 한일비교

변 인	한국 (n=164)		일본 (n=152)		t 값
	M	SD	M	SD	
상호독립적 자기관	4.72	0.72	4.28	0.84	5.03***
상호협조적 자기관	4.86	0.57	4.70	0.68	2.30*
자아존중감	5.27	0.97	4.29	0.98	8.91***
공적자기의식	5.35	0.76	4.93	0.97	4.27***
대인불안	3.09	0.92	3.47	1.01	-3.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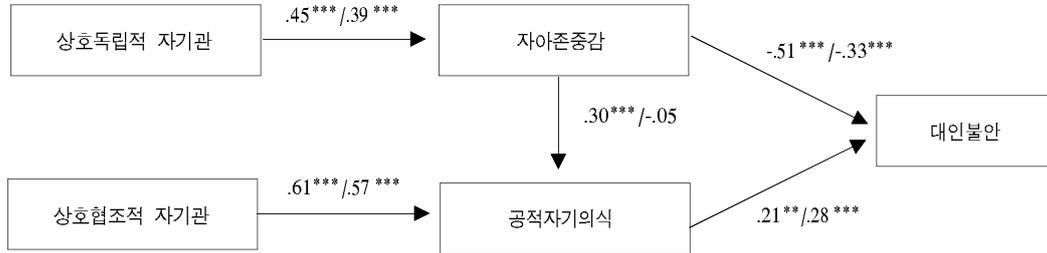
주. * $p<.05$, ** $p<.01$, *** $p<.001$

또한 한국에서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t(163)=1.85, ns.$, 일본에서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높았다. $t(151)=4.37, p<.001$.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문화적 자기관, 자아존중감, 공적자기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와 경로계수를 살펴보았다. 이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표 2와 같이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GFI는 .971, AGFI는 .892로 일반적인 수용준거인 .90을 초과하거나 매우 근접한 수치를 보였으며, RMR와 RMSEA는 각각 .047과 .082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χ^2 검증에서도 연구모형이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4.998, p<.001$). 본 연구자들은 이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그림 2에서와 같이 경로계수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에서 상호독립적 자기관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45, p<.001$, 자아존중감은 대인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beta=-.51, p<.001$, 공적자기의식에는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0, p<.001$. 또한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공적자기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61, p<.001$, 공적자기의식은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1, p<.01$.



주. 각 경로계수의 앞의 값은 한국, 뒤의 값은 일본을 나타냄

그림 2. 제안된 경로분석 결과 - 한국과 일본

즉, 한국에서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져서 대인불안을 적게 느끼며, 반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면 공적자기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인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해석이 지지되었다. 또한 한국에서 자아존중감은 대인불안에 부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공적자기의식을 통해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효과는 .06으로 직접효과인 -.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의해 대인불안 변량의 약 25.3%가 설명되고 있었다.

표 2.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 지수 (N=316)

	GFI	AGFI	RMR	RMSEA	χ^2
추정치	.971	.892	.047	.082	24.998

표 3.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한국				
1. 상호독립적 자기관				
2. 상호협조적 자기관	-.24 **			
3. 자아존중감	.45***	-.14		
4. 공적자기의식	.00	.58***	.21**	
5. 대인불안	-.38***	.25**	-.46***	.10
일본				
1. 상호독립적 자기관				
2. 상호협조적 자기관	-.28 **			
3. 자아존중감	.39***	-.21 *		
4. 공적자기의식	-.28 **	.58***	-.17 *	
5. 대인불안	-.33***	.40***	-.37***	.34***

주.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beta = .39, p < .001$, 자아존중감은 대인불안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 = -.33, p < .001$,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자아존중감이 공적자기의식에 주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05, ns$. 또한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한국에서와 같이 공적자기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beta = .57, p < .001$, 공적자기의식은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8, p < .001$.

즉, 일본에서도 한국에서와 같이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강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아져서 대인불안을 적게 느끼며, 반면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강하면 공적자기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인불안 수준이 높아진다는 해석이 지지되었다. 또한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자아존중감이 공적자기의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변인들에 의해 대인불안 변량의 약 20.8%가 설명되고 있었다.

조절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

공적자기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에 자아존중감이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해 탐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전체 응답자를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공적자기의식의 높고 낮음에 따라 대인불안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분산분석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공적자기의식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고, $F(2, 310) = 40.38, p < .001$; $F(1, 310) = 13.92, p < .001$,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2, 310) = 3.16, p < .05$.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자아존중감에 따라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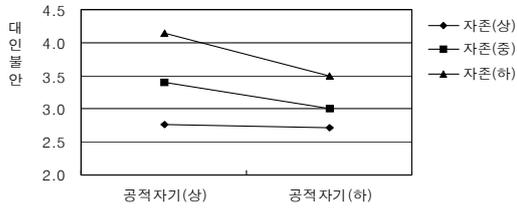


그림 3. 자아존중감과 공적자기의식 수준에 따른 대인불안수준의 비교

류한 각 집단별로 *t*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이 상위인 집단($M=6.00$)인 경우 공적자기의식 수준에 따라 대인불안 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t(101)=.27, ns.$, 자아존중감 수준이 중간인 집단($M=4.85$)과 하위인 집단($M=3.61$)의 경우에는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103)=2.45, p<.05$; $t(106)=3.77, p<.001$.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적자기의식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대인불안을 적게 느꼈으나($M=2.76, SD=0.11, M=2.72, SD=0.14$) 자아존중감 수준이 중간인 사람들은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3.40, SD=0.11, M=3.00, SD=0.13$),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사람들 또한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M=4.14, SD=0.12, M=3.49, SD=0.12$).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대인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문화적 자기관, 자아존중감, 공적자기의식, 대인불안 수준을 한일간 비교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증하고 각 경로에서의 한일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이 공적자기의식과 대인불안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는지 검토해 보았다.

먼저 각 변인들의 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같은 동양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서로 간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대학생이 일본대학생보다 상호독립적 자기관, 상호협조적 자기관, 자아존중감, 공적

자기의식이 더 높았으며, 대인불안 수준만이 일본대학생이 한국대학생보다 더 높았다. 또한 문화적 자기관의 경우 한국대학생들은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 간의 차이가 없었으나 일본대학생들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상호독립적 자기관보다 높았다. 한국대학생의 경우, 동양문화권에서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다는 Markus와 Kitayama(1991)의 견해와는 일치하지 않았으나, 일본대학생보다 상호협조적 자기관과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연구(이누미야 등, 1999)와도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단순히 척도점수에 근거해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Greenfield, 1997).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변인들에서의 한일비교와 함께 그러한 변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인 모형을 비교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한국과 일본에서의 대인불안모형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연구자들이 설정한 대인불안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모형수준에서 볼 때, 문화적 자기관과 자아존중감, 공적자기의식으로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구조방정식모형이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적합하였다. 또한 세부 경로수준에서 볼 때, 연구자들이 가정한 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대인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상호협조적 자기관은 공적자기의식을 매개로 대인불안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재능, 성격특성 등의 내적 속성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자기실현을 도모하는데, 이러한 자기고양경향은 자신의 존재를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높은 자아존중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우세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대인불안이 낮으며, 이는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자아존중감을 거쳐 대인불안에 부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적응하며 자신의 바람직하지 않은 속성을 인식하며, 이를 수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 주의를 기울이는 높은 공적자기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하

며 공적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대인불안이 높으며, 이는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대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기보다는 공적자기의식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일양국 모두 상호독립적 자기관이 높은 사람들은 자아존중감이 높기 때문에 대인불안을 적게 느끼고,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높은 사람들은 공적자기의식이 높기 때문에 대인불안을 많이 느낀다는 해석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국대학생은 일본대학생보다 대인불안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평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본대학생의 대인불안 수준이 한국대학생보다 높은 것은, 상호협조적 자기관이나 공적자기의식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자아존중감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에서 자아존중감은 대인불안에 부적 영향을 주는 동시에 공적자기의식을 통해 대인불안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정적인 간접효과는 부적인 직접효과에 비해 아주 미미한 영향인 것으로 나타나 위와 같이 해석해도 무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인불안 모형의 자아존중감과 공적자기의식간의 관계의 경우, 한국에서는 예상대로 자아존중감이 공적자기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일본에서는 본 연구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자아존중감이 공적자기의식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공적자기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본 연구자들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과 일본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공적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은 적극적인 자기현시경향과 자기방어경향을 모두 보이는 정반대의 반응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적자기의식의 상반된 반응경향을 설명해주는 변인중의 하나는 자아존중감이었다. 다시 말하면,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로 인해 공적자기의식이 나타내는 반응경향은 다르며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랐다. 본 연구자들은 한국대학생이 일본대학생보다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하며, 한국과 일본대학생의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수준의 차이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한국에서는 공적자기의식에 정적영향을 미치고 일본에서는 부적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각 자기현시경향과 자기방어경향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자기방어경향이 강한 일본은 자기현시경향이 강한 한국

보다 공적자기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자아존중감이 공적자기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일본에서는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자아존중감이 공적자기의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폭넓은 자아존중감 수준의 집단을 동시에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과 공적자기의식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가 아니라 V자형의 관계를 보일 거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한국인과 같이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보다 효과적으로 자기현시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모니터링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지지되었으나, 일본인과 같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으로부터의 부정적 평가를 면하기 위해서 타인의 입장에 서서 자신을 모니터링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지지되지 않았고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공적자기의식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적자기의식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한일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전체 대학생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적자기의식과 대인불안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이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공적자기의식의 수준과 상관없이 대인불안을 적게 경험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중간수준이거나 낮은 사람들은 공적자기의식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나 타인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높은 공적자기의식은 자기현시성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대인불안과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의 평가나 타인에게 비쳐지는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의 높은 공적자기의식은 자기방어 또는 자기개선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대인불안을 수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문화적 자기관, 자아존중감, 공적자기의식, 대인불안 수준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지만, 그러한 변인들을 모두 포괄하는 대인불안 모형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공적자기의식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매우 비슷한 양상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자기

관을 통해 대인불안을 설명하는 통합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대인불안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변인들과 대인불안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거나 심리적 적응과 같은 포괄적인 구성개념 속에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본 것들이었다. 최근에 김보경(2003)은 한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문화적 자기관과 대인불안 간에 공격자기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형에서 더 나아가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대인불안간의 매개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은 또한 한국에서 공격자기의식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일본에 공동으로 적용가능한 대인불안 모형을 검증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비교문화연구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본 연구에서와 같이 한 가지 개념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포함하여 모형수준에서 문화차를 설명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분류되는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비교가능한 공동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서로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나라,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으로 이같은 연구를 확대하여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세 나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동양문화권의 대인불안모형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모형을 서구의 개인주의문화권의 대인불안 모형과 비교해본다면 문화권간의 차이와 같은 문화권내의 차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불안을 규정하는 변인들 중 자아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간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연구에서 먼저 자기개념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 속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자기의식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고, 또한 생활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과 같은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 두 개념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로 그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다른 집단에 비해 여러모로 유사한 특성을 갖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화적 차이

를 비교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각 문화를 대표하는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상호독립적 자기관과 상호협조적 자기관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한국대학생들의 결과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검증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정혜, 이정운, 조선미 (1998). 수줍음도 지나치면 병. 학지사.
- 김보경 (2003). 독립적-상호의존적 자기관과 사회불안-공적 자의식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1995). 귀인상황의 공개성과 (집단)자아존중이 자기고양귀인과 집단고양귀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9(1), 45-63.
- 서동효 (2001). 집단에 대한 애착 및 문화적 자기관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누미야 요시유키, 최일호, 윤덕환, 서동효, 한성열 (1999). 비현실적 낙관성 (unrealistic optimism) 경향에 있어서의 비교 문화 연구: 상호독립적 - 상호협조적 자기관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3(1), 183-201.
- 조선영, 이누미야 요시유키, 한성열, 木村裕 (2005). 한일대학생의 대인불안 규정요인의 비교: 공격자기의식, 자아존중감, 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 조아라 (1996). 자기초점화 주의가 장애 수용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黒川正流 (1994). 相互依存性の性質と自己解釋圖式が對人影響行動に及ぼす効果の検討. 平成4・5年度科學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 小川捷之 (1974). いわゆる對人恐怖症者における惱みの構造に關する研究. 横浜國立大學教育紀要, 14, 1-33.
- 北山忍 (1995). 文化的自己觀と心理的プロセス. 社會心理學研究, 10, 153-167.

- 北山, 唐澤 (1995). 自己－文化心理學的視座. 實驗社會心理學研究, 35, 133-163.
- 齋藤環 (1998). 社會的ひきこもり. PHP新書.
- 菅原健介 (1984). 自意識尺度日本語版作成の試み. 心理學研究, 55, 184-188.
- 高田利武 (1992). 獨立的-相互依存的自己と自尊感情および社會的比較. 日本グループ・ダイナミクス學會第40回大會發表演文集, 109-110.
- 高田利武, 大本美千惠, 清家美紀 (1996). 相互獨立の一相互協調的自己觀尺度(改訂版)の作成. 奈良大學紀要, 241, 57-173.
- 堀井俊章, 小川捷之 (1996). 對人恐怖心性尺度の作成. *The Psychological Report of Sophia University*, 20, 55-65.
- 向井靖子 (2001). 對人不安の生起・維持プロセスの理論モデルに關する 展望－回避的行動と自己愛、他者への關心の葛藤という觀點から. 東京大學大學院教育學研究科紀要, 41, 319- 326.
- Buss, A. H. (1980).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San Francisco, Calif. : Freeman.
- Cheek, J. M., & Buss, A. H.(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Diener, E., & Diener, M. (1995). Cross-cultural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653-663.
-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75-86.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Greenfield, P. M. (1997). You can't take it with you : Why ability assessments don't cross cultures. *American Psychologist*, 49, 104-111.
- Heine, S. J., & Lehman, D. R. (1997).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lf-enhancement : An examination of group-serving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68-1283.
- Kleinknecht, R. A., Dinnel, D.L., & Kleinknecht, E. E. (1997). Cultural Factors in Social Anxiety : A Comparison of Social Phobia Symptoms and Taijin Kyofusho. *Journal of Anxiety Disorder*, 11, 157-177.
- Kwan, V. S.,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Leary, M, R., & Schlenker, B. R. (1981). The social psychology of shyness : A self-presentational model. In J. T. Tedeschi(Ed.),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New York : Academic Press.
-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tsumoto, D. (2000). *Culture and Psychology : People Around the World*. Wadsworth.
- Okazaki, S. (1997). Sources of ethnic different between Asi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college students on measures of depression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52-60.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 Press.
- Scheier, M. F. (1980).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on the public expression of personal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514-521.
- Schlenker, B. R. & Leary, M, R. (1982). Social anxiety and self-presentation : a conceptualization and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92, 641-669.
- Schlenker, B. R., Weigold, M. F., & Hallam, J. R. (1990). Self-serving attribution in social context :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pres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55-863.

Effects of Independent-Interdependent Self-Construal on Social Anxiety in South Korea and Japan : Mediational Effects of Self-Estee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Sunyoung Cho **Yoshiyuki Inumiya** **Jaeshin Kim** **Ilho Choi**
Waseda University Seojeong Colleg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yongj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is dealing the influence of independent-interdependent self-construal on social anxiety and the mediational effects of self-estee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in South Korea and Japan. Participants were 164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152 university students in Japan. As a result, the goodness of fitness of the proposed model was acceptable. More specifically, in both countries independent self-construal was found to have inhibitory influence on social anxiety indirectly through self-esteem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was found to have facilitatory influence on social anxiety indirectly through public self-consciousness.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in Korea the influence of self-esteem on public self-consciousness is significant, but in Japan that influence is not significant. Lastly, the results were interpreted as suggesting that self-esteem can play a moderational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social anxiety.

Key word : South Korea, Japan, Independent Self-Constru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lf-Esteem,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al Anxiety

원고접수 : 2005년 9월 22일
심사통과 : 2005년 11월 7일